

19세기 풍패지향(豊沛之郷)의 풍경

— 사애(沙厓) 민주현(閔胄顯)의 <완산가>와 전주 관련 제영시 연구 —*

김승우(전주대)

<목차>

- | | |
|----------------------|--------------------|
| 1. 서론 | 4. 민주현의 눈에 비친 19세기 |
| 2. 작품 창작의 경위 | 전주의 풍광과 문화 |
| 3. 전주의 지세와 역사에 관한 인식 | 5. 결론 |

1. 서론

본고에서는, 철종~고종 연간의 문인인 사애(沙厓) 민주현(閔胄顯, 1808~1882)이 전주(全州)에 재임하는 동안 지은 가사(歌辭)와 한시(漢詩)를 살핍으로써 문학 작품에 반영된 19세기 전주의 풍광과 문화를 검토하고 이 시기 전주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이해를 심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옛 문헌 속에서 전주는 후백제(後百濟)의 도읍지, 조선왕조의 발상지, 삼남(三南) 지방의 유력한 도회, 승경이 많은 지역, 남국(南國) 인재의 집결지,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2188)

물산이 풍부하고 장사가 활발한 교역지 등 다양한 위상으로 기록되어 왔다.¹⁾ 아울러 문인들이 전주에 머물며 지은 각종 제영시(題詠詩) 역시 상당한 양에 달하는데, 특히 한벽당(寒碧堂)과 만경대(萬景臺)에 관한 작품이 다수 발견된다. 종래의 연구들에서는 이들 한시 작품을 통해 전주의 누정 문화를 살피거나 전주가 지닌 풍패지향(豐沛之鄉)으로서의 위상을 거론하여 왔다.²⁾ 또한 근래에는 시조(時調)에 반영된 조선후기 전주의 풍광을 분석한 연구가 제출되기도 하였다.³⁾

본고는 위와 같은 선행 논의의 성과를 보다 확장하기 위해서 사에 민주현의 작품들을 바탕으로 19세기 전주의 문화적 도상(圖上)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한시와 시조는 대개 특정한 사적이나 경관을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민주현은 2음보 1구 기준으로 200구에 달하는 가사〈완산가(完山歌)〉를 지어 전주의 풍경을 다채롭고도 연속적으로 그려 내었다.

〈완산가〉에 대해서는 이미 하성래와 김신중에 의해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완산가〉를 처음 소개한 하성래는 작자 민주현의 생애, 작품의 이본, 작품의

- 1) 『용비어천가』 권1, 5a면;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전주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전라도, 전주부; 『完山誌』 卷上, 4a-4b면; 全州府 編, 『全州府史』, 全州: 全州府, 1943, 1-5면 등.
- 2) 김갑기, 「韓國題詠詩研究(1)」, 한국문학연구 제12권, 동국대 한문학연구소, 1989, 243-268면; 박준규, 「조선 전기 全北의 樓亭題詠攷」, 호남문화연구 제25집, 전남대 호남학연구소, 1997, 251-283면; 정훈, 「한벽당 제영시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27집, 우리어문학회, 2006, 205-228면; 노재현·신상섭, 「역사경관의 이미지 형성 과정으로 본 한벽당」,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5권 4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07, 52-64면; 정훈, 「만경대에 형성된 호남 患의 이미지」, 『호남문화연구』 제48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10, 351-378면; 박지숙, 「〈한벽당십이곡〉과 조선후기 누정문화」, 『한국어와 문화』 제10집,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2011, 35-62면; 이우갑, 「전주 관련 한시 연구: 왕실 분향 이미지를 중심으로」,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2015 등.
- 3) 김승우, 「조선후기 시조에 반영된 전주의 문화적 도상」, 『조선시대 시가의 현상과 변모』, 보고서, 2017, 503-535면; 구사회, 「『시조책』(김해정 소장본)과 새로운 시조 작품에 대하여」,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9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19·26면.

형식 및 내용과 문학사적 의의 등을 폭넓게 다루었다.⁴⁾ 또한 김신중은 <완산가>의 두 이본인 '종가본(宗家本)'과 '송곡본(松谷本)'을 대비하여 작품의 변이 양상을 검토하였다.⁵⁾ 이들 연구를 통해 <완산가>의 여러 면면과 특징이 해명되기는 하였으나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항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완산가>가 다루고 있는 '완산', 즉 19세기 전주의 풍광과 그에 대한 작자의 인식에 관해서는 한층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한다. 하성래의 논문에서 작품 속 장소들에 관련된 자료가 간략히 언급된 정도를 제외하면⁶⁾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한편, 민주현은 전주에 재임했던 약 3년 동안 전주의 주요 명승들을 둘러본 후 여러 편의 한시를 짓기도 하였다.⁷⁾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폐향십영(沛

- 4) 하성래, 「완산譚」, 『한국언어문학』 제5집, 한국언어학회, 1968, 53-56면; 하성래, 「沙陴閔胄顯의 完山歌攷」, 『명지어문학』 제16권, 명지대 국어국문학과, 1984, 193-227면.
- 5) 김신중, 「<완산가>의 전승과 변이 고찰」, 『고시가연구』 제2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1-21면. 이 논문에서는 '일부 자구의 교체', '기술 순서의 착종', '관련 내용의 침식', '세필 주석의 활용'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이본간의 차이를 분석한 후, 후대본인 송곡본에 이르러 구비적 성격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 6) 하성래, 앞의 논문(1984).
- 7) 『사에집』 권1, 2에 수록된 민주현의 시는 시체 구별 없이 저작 연도순으로 편차되어 있는데, 권1에는 27세 때인 순조34년(1834)부터 50세 되던 철종8년(1857)까지의 작품이 실려 있다. 민주현이 전주에 머물면서 전주의 풍광을 소재로 시를 지었던 시기는 철종4년(1853)년부터 약 3년간이므로, 해당 작품들이 『사에집』 권1의 후반부에 잇달아 수록되었다. [서인숙, 「『사에집』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편, 『한국문집총간 해제』 11, 한국고전번역원, 2013, 239면 참조.] 그 가운데 몇몇 작품은 하성래, 앞의 논문(1984)에서 언급된 바 있으나, 전주 관련 제영시를 종합적으로 탐문하고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현이 전주에 머물며 지은 것으로 파악되는 작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萬景臺 謹次圃隱先生韻【在全州】>; <寒碧堂 次壁上韻>; <又次壁上韻>; <全州東門樓 用拋樑東韻>; <次呈洪縈谷【一純○二首】>; <直中書懷>; <李全義山亭詩會>; <金士汝【相淳】家設會 次權石洲韻>; <崔孝汝【顯宇】，李上舍【鳳夔】見訪>; <遊玉流洞【洞卽崔月塘遺墟 有碑】>; <寒碧堂設會>; <勝金亭 水調歌頭 用板上韻>; <萬化樓 謹次佔畢齋先生韻【全州鄉校門樓】>; <謹次烟村先生韻 奉呈崔兄仲季【二首○並小序】>; <豐沛館 次權青霞【克中】韻>; <直中感懷 寄蕉史>; <十一月夜坐得僧字>; <落齒有感【二首】>; <寒食 次韓君平韻>; <重陽>; <鄭箕範【洛】見訪>; <咸悅

鄉十詠))처럼 연작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민주현은 개개의 한시 작품에서 전주 지역 명소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 의미를 논하거나 심회를 토로하였다. <완산가>가 다수의 지점들을 열거하며 유장하게 전주의 풍광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시는 각각의 경관이 지니고 있는 미감을 보다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경향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와 한시가 내용상의 측면에서 서로를 보완해 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같은 소재를 한 작자가 각각 국문과 한문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표현상의 측면에서도 서로를 견주어 볼 수 있는 여지가 나타난다.

이처럼 민주현의 가사와 한시 작품은 지리지(地理志)나 읍지류(邑誌類)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조선후기 전주의 문화적 도상을 살피는 데 매우 적절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민주현이 작품을 창작한 경위를 검토한 후, 작품의 내용을 '전주의 지세와 역사에 관한 인식'과 '민주현의 눈에 비친 19세기 전주의 풍광과 문화'라는 두 범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2. 작품 창작의 경위

작자 민주현의 생애는 그의 문집인 『사애집』에 수록된 「연보」와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이 지은 「행장(行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전한다. 민주현의 본관은 여흥(驪興)이며, 순조8년(1808)에 현재의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에 위치한 동복현(同福縣) 사평리(沙坪里)에서 민백의(閔百燦, 1775~1842)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민백의는 평생 향촌에 머물며 독서와 시작(詩作)에 힘쓰면서도 집안을 건사하기 위해 직접 농사일을 돌보기도 하였는데,⁸⁾ 민주현은 유년기

東軒拈韻共賦【主倅閔致序, 黃益山鍾林, 金參奉秀煥同會】: <正月二日 直中感吟【丁巳】>; <十八日出直下鄉 積雪未消有作>; <次南溪亭韻>; <到完府 賞東城花柳>; <觀劍舞>; <李上舍, 崔孝汝見訪 共遊金士汝詩會社>; <觀燈夕 與魏令【鍾崑】 權雅【守憲】共賦>; <崔孝汝, 李上舍見訪>; <余將出直下鄉 舊日詩伴會于寒碧堂 以詩餞別 共十二人> 『사애집』 권1. [『한국문집총간(속)』 129, 한국고전번역원, 2011, 61-64면.]

8) 민주현, 「先府君家狀」, 『사애집』 권6. [『한국문집총간(속)』 129, 한국고전번역원, 2011,

부터 그러한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곱 살 때 부친에게서 「십구사략(十九史略)」을 배울 당시 한 글자도 착오 없이 책을 암송할 정도로 충기가 있었고, 글을 읽느라 식사도 거를 만큼 독서에 대한 열의가 높았다고 한다.⁹⁾ 29세 때 형 민갑현(閔甲顯)과 함께 향시(鄕試)에 합격하였으며, 이후 홍직필(洪直弼) 등에게 사사 받으며 학업을 쌓다가 44세 되던 철종2년(1851)에 비로소 문과 병과에 급제하였다. 첫 환로는 권지승문원(權知承文院) 부정자(副正字)로 시작하여 곧 겸춘추관(兼春秋館) 기사관(記事官)이 되었고, 급제 3년 만인 철종5년(1854) 10월에 외직인 조경묘(肇慶廟) 별검(別檢)에 임명되어 전주에 내려 가 머물렀다. 철종7년(1856) 12월에 성균관 전적(典籍)을 제수 받고 조경묘 영(令)으로 옮겼으나 나아가지 않았다가 이듬해 11월에 사간원 정언이 되어 상경하였으며, 이후 형조 좌랑·사간원 헌납·사헌부 집의·봉상시(奉常寺) 정(正)·병조 정랑·병조 참의·한성부 우윤·좌승지·병조 참판 등 줄곧 경관직에 있다가 고종19년(1882) 1월에 향년 75세로 졸하였다.

이처럼 민주현은 47세 때인 철종5년(1854) 10월부터 약 3년 동안에만 유일하게 외직으로 나가 있었다. 당시 임소인 조경묘는 전주 이씨의 시조인 사공(司空) 이한(李翰)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해 영조47년(1771)에 경기전(慶基殿)의 북쪽에 건립한 사당으로, 민주현이 조경묘 별검으로 임명되었던 그해에 한 차례 개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¹⁰⁾ 민주현은 이제 막 개수된 묘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이 직임에 대해 당시 그는 실망한 기색을 뚜렷이 드러내었다. 「연보」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민주현은 <완산가>의 전반부에서는 전주의 산수와 풍속을 그리다가 후반부에서는 용퇴(勇退)하고자 하는 울울한

61면.] “府君以英宗乙未十一月十六日生，氣稟清秀，性又聰穎，讀書不煩教督，而能透大義，餘事功令，尤工於詩。(…) 府君悉心幹家，服勤致養無不至，董率農夫。”

9) 「연보」, 『사에집부록』 권1. [『한국문집총간(속)』 129, 한국고전번역원, 2011, 158-159면.] “甲戌【先生七歲】，始就學，受十九史畧於參判公，(…) 既盡讀一冊，背誦無一字差誤”；癸未【先生十六歲】，冬讀『詩傳』，晝則闕午飯，夜以限雞鳴，全帙讀數，殆至三百遍。”

10) 『철종실록』 권8, 7년 11월 1일(을묘). “肇慶廟，慶基殿修改時，監董以下，施賞有差，道臣金炳喬加資.”

심경을 토로하였거니와,¹¹⁾ 〈완산가〉뿐만 아니라 전주에서 지은 여러 한시 작품들에서도 그러한 답답한 마음이 드러난다.

始興中火到華城	시흥에서 점심을 먹고 화성에 도착하니
列邑應行送又迎	들리는 고을마다 응당 환영과 송별을 해 주네.
街童不識吾官冷	거리의 아이들은 내 관직이 낮은 줄도 모르니,
共聽春風勸馬聲 ¹²⁾	봄바람에 말 행차 비키라는 말을 모두가 듣는구나.

中年의 나라 손이	鹿鳴을 노래한이
黃金榜 놓흔 일흠	始望에 미쳤스라
白晝의 錦衣로	鄉邦動色하였도다
平生의 큰 抱負	白首潛郎 除授 바더
於焉間 無情光陰	二年을 나단 말가 ¹³⁾

【115~124구】

부임하는 도정에 지은 한시에 참괴함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들르는 고을마다 환영과 송별을 해 주고 관원이 행차한답시고 길거리에서는 권마성(勸馬聲)을 외치며 위세를 더하지만, 정작 민주현은 미관(微官)으로 제수되어 떠나는 스스로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다. 〈완산가〉에서는, 47세의 나이에 급제하여 느지막하게라도 영예를 누렸지만, 경세에 대한 큰 포부를 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별검의 직으로 전주에 내려 와 벌써 2년이나 머물렀다는 처연한 심정이 표출되었다.

민주현이 그렇듯 서글퍼 했던 것은, 뜻하지 않게 돌연 외방으로 내려가야

11) 「연보」, 『사에집부록』 권1. [『한국문집총간(속)』 129, 한국고전번역원, 2011, 164면.]

“丙辰【先生四十九歲】，作〈完山歌〉，完山即豐浦之鄉，而山水秀麗，人物輩出，風俗華靡，先生臚列成篇，尾寓仕進勇退之意，以真諺翻成，府人至今傳誦。”

12) 민주현, 〈水原道中作〉, 『사에집』 권1. [『한국문집총간(속)』 129, 한국고전번역원, 2011, 61면.] 본고에 인용한 한시 작품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전주대 한문교육과 강동석 선생님께서부터 작은 부분에서 이르기까지 여러 도움을 받았다.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린다.

13) 〈완산가〉 원문은 하성래, 앞의 논문(1968)에 소개된 ‘종가본’으로 인용하며, 2음보 단위를 1구로 산정하여 구수를 밝힌다.

했던 데다 묘를 지키는 일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한직(閑職)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전의 직책이었던 부정자와 기사관 역시 별검과 마찬가지로 낮은 품계의 관직이기는 하지만,¹⁴⁾ 승문원과 춘추관에서는 문과 급제자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었던 반면에, “청숙(淸肅)한 재실(齋室)의 / 주야(晝夜)에 홀로 잇서” 【125~126구】 외로움만 가득한 조경묘에서는 별다른 전망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가 별검의 직위를 ‘잠랑(潛郎)’이나 ‘관냉(官冷)’이라 표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나마 민주현은 이따금 전주의 산수를 둘러보며 위안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離家荏苒半年強
寂寞寒齋直宿郎
性懶愛書猶不讀
才疎拈韻未成章
砌花爲伴經春晷
庭鳥相酬到夕陽
安得超然名利白
東南山水好徜徉¹⁵⁾

집 떠나 와 부질없이 반년을 억지로 보내고
적막하고 차디찬 이곳에서 숙직을 하는구나.
게으른 성품에 글 읽기 좋아하지만 오히려 글을 못 읽고
불 일 없는 재주로 시를 짓는데도 문장은 이루지 못하네.
섬돌의 꽃은 반절 줄어 봄도 벌써 가고 있고
뜨락의 새는 서로 지저귀다 저녁이 되었구나.
어떻게 초연하게 명에나 이곳을 구한단 말이요?
동남쪽 산수에서 배회하기를 좋아하는데.

三逕의 잇는 松菊 아춤저녁 서서 보고
村秀才子 조차 놀아 尋行數墨 할 일이며
田翁다려 桑麻 못고 漁父 맛나 垂釣하고
山水에 徜徉하야 風月을 吟詠하면
人間的 질거운 일 그 맞게 또 잇슬가

【173~182구】

14) 『완산지』에 따르면 조경묘에는 음직(蔭職) 종5품 영(令) 1명, 문관 종8품 별검 1명, 수복(守僕) 135명, 금화군(禁火軍) 40명을 두었다. [『완산지』 권1. [전주시·전주문화원 편, 『(완역) 완산지』, 전주: 전주시·전주문화원, 2009, 58면.] 조경묘의 영은 음직인 반면, 별검은 문신으로 임용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민주현을 조경묘 별검으로 보낸 것은 규정에 부합하는 인사 조치라 할 수 있다.

15) 민주현, 〈直中書懷〉, 『사에집』 권1. [『한국문집총간(속)』 129, 한국고전번역원, 2011, 62면.]

전주에 내려 온 이듬해인 철종6년(1855) 늦봄에 지은 한시에 그 같은 사정이 잘 나타난다. 조경묘에서 홀로 숙직할 때의 상황에 대해 <완산가>에서는 “일병축(一柄燭)이 벗이 되고 / 수권(數卷) 책자(冊子) 곁에 있다” [127~128구]라고 하였는데, 위 시에서도 민주현은 글을 읽거나 시를 지으며 무료함을 달래려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적한 마음에 독서도 시작도 모두 뜻대로 되지 않고 시간만 덧없이 흐른다면 한탄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마음을 다잡으면서 명리(名利)에 연연하지 않고 산수 유람이나 하리라는 지향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심경은 <완산가>에도 나타난다. 도잠(陶潛, 365 ~427)과 같은 은자의 삶을 살면서 초야의 수재(秀才)들과 어울려 놀고, 글 읽기도 건성으로 하며 흥취를 누리고자 하는 뜻이 역력히 나타난다. ‘산수’와 ‘풍월’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으려 하였던 것이다.

정치적 포부가 좌절될 때 사대부들이 강호를 동경하는 것은 지극히 흔한 일이지만, 민주현의 경우는 여느 사대부들과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민주현이 겪는 갈등은 환로가 완전히 차단되었거나 정치적 공간에서 쫓겨 나 유배를 가게 되어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과 급제자에게 걸맞은 경관직의 벼슬을 받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찾아오면 갈등은 이내 해소될 수 있으므로, 강호는 그러한 때를 기다리며 일시적인 위안을 구하는 공간일 뿐, 근본적인 귀의처가 될 수는 없다. 진정 은자의 삶을 살고자 했다면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하거나 심산공곡으로 찾아 들어가야 하지만, 불만족스러운 직책일 망정 민주현은 임지를 지키며 3년 간 전주에 머물렀던 것이다.

이처럼 강호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으면서도 임지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란 전주와 그 일대의 명소를 유람하면서 시를 짓는 것이었다. <완산가>에서는 전반부에 전주의 풍광이 나오고 후반부에 한탄이 제시되지만, 작자의 상황과 연관 지어 보면 실제로는 그 반대의 순서가 오히려 자연스럽다. 즉, 민주현은 말직으로 전주에 내려 와 머무는 울울한 심정을 달래기 위해 틈나는 대로 좋은 경치를 둘러보며 위로를 얻으려 했고, 그러한 흔적이 <완산가>와 한시 작품에 투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지명을 고려하면 민주현은 전주의 주요 명승을 거의 빠짐없이 편담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완산가>에 전주의 승경을 정연하고도 묘미 있게 나열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해당 장소들을 직접 둘러보며 풍광을 살폈기 때문이다. “동남촌(東南村)의 이는 벗임 / 고반재간(考槃在澗) 하엿스어”【137~138구】나 “촌수재자(村秀才子) 조차 놀아”【175~176구】와 같은 구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전주 유람은 대개 지역의 인사들과 함께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관련하여 「연보」에 제시된 다음의 기록을 참고할 만하다.

을묘년(철종6년(1855))【선생 48세】, 봄에 한벽당·만경대·옥류동을 둘러보았다. 영(令) 정의관, 참봉 이봉현, 진사 이봉기, 진사 최현우(최홍우), 사함(士涵) 이호만, 사여(士汝) 김상순, 내운(乃潤) 조병관이 함께 갔다. 이날 밤에, 같이 노닌 여러 공들이 선생의 고적함을 위로하고자 한 기녀를 뽑아 시침(侍寢)하게 하였는데, 선생은 맑고 엄숙한 땅에 와 있다며 끝내 가까이 하지 않았다.¹⁶⁾

을묘년은 민주현이 전주에 내려 온 이듬해인데, 이해 봄에 그는 한벽당·만경대·옥류동과 같은 전주의 명승을 유람하였다. 당시 동행했던 인사들 가운데 정의관(鄭義觀)은 철종5년(1854) 5월부터 철종7년(1856) 11월까지 경기전(慶基殿) 영(令)에 있었던 인물로 확인된다.¹⁷⁾ 그밖에 전의 이씨인 진사 이봉기와 참봉 이봉현, 전주 최씨인 진사 최현우 등이 동참하여 자못 성대한 회합이 이루어졌다. 이때 참여한 여러 인사들이 민주현을 위로하고자 기녀를 침소에

- 16) 「연보」, 『사에집부록』 권1. 『한국문집총간(속)』 129, 한국고전번역원, 2011, 164면.] “乙卯【先生四十八歲】，春遍歷寒碧堂，萬景臺，玉流洞，鄭令【義觀】，李參奉【鳳賢】，李進士【鳳夔】，崔進士【顯宇，弘宇】，李士涵【灑萬】，金士汝【相淳】，趙乃潤【炳瓘】，同往。是夜同遊諸公，要慰其孤寂，選一妓侍寢，先生以清肅之地，終不近之。”
- 17) 『승정원일기』 철종5년 5월 21일(기미)； 철종7년 11월 20일(갑술). 경기전은 태조의 어진(御眞)을 봉안하고 제사 지내던 진전(眞殿)으로, 『완산지』에 따르면 경기전에는 음직 종5품 영 1명, 음직 종9품 참봉(參奉) 1명 등을 두었다. 『완산지』 권上 [전주시·전주문화원 편, 앞의 책, 58면.]

들었던 것을 보면, 그가 쓸쓸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주변 인물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경사(經史)를 묻기 위해 원근에서 사우(士友)들이 몰려들 정도로 민주현은 당시 전주에서 상당한 명망을 지니고 있었거니와,¹⁸⁾ 지역의 인사들은 틈나는 대로 민주현을 청해 함께 주변을 유람하며 그의 우울한 마음을 풀어 주려 하였고,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민주현은 전주의 명승에 대한 견문을 넓혀 가게 되었던 것이다.¹⁹⁾

3. 전주의 지세와 역사에 관한 인식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민주현이 전주의 주요한 명소에서 여러 편의 한시를 창작한 것이나, 전주의 지세와 역사, 풍광과 전승이 망라된 <완산가>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인사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전주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인 체험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민주현의 작품에는 19세기 중엽 전주에 관련된 각종 사항들이 적실하게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내역들을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되, <완산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관련 한시 작품들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3.1. 전주의 지세에 대한 개관

<완산가>가, 전주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는 전반부와 작자의 우울한 심사가 토로된 후반부로 양분된다는 점은 「연보」에도 언급된 바이지만, 그러한 전반부

18) 「연보」, 『사에집부록』 권1. [『한국문집총간(속)』 129, 한국고전번역원, 2011, 164면.]

“先生以直中無事，亦喫緊做工於經史之間，遠近士友往來講質者甚衆。”

19) 민주현이 <완산가>의 초두를 “구경가새 구경가새 완산부(完山府) 구경가새”라고 하여 타지인이 전주를 ‘구경’하는 형상으로 이끌어 간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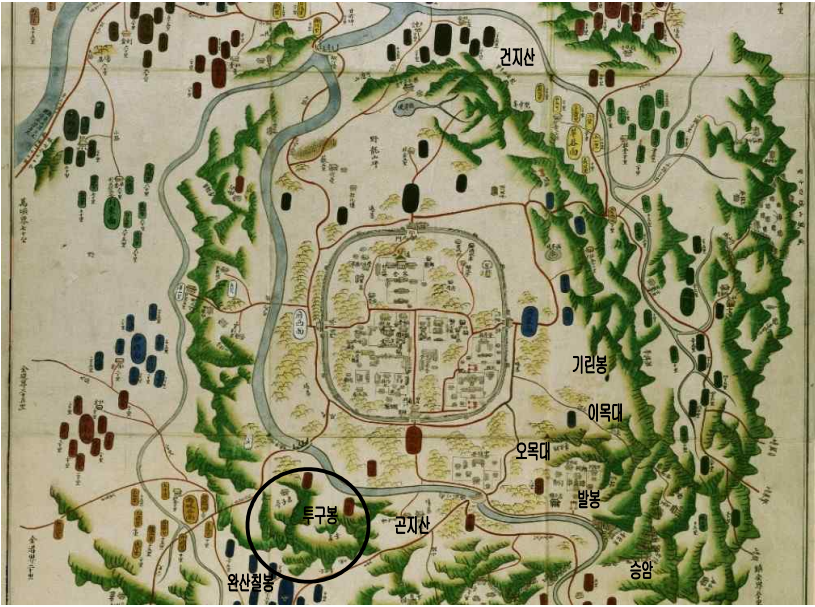
의 내용을 다시 양분하면 전주를 큰 틀에서 조망한 앞부분과 개개의 명소를 세세히 나열한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조망이 담긴 앞부분도 다시금 공간적 측면과 시간적 측면으로 나뉜다. 즉 〈완산가〉는 전주의 산세와 지맥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어 전주의 과거와 현재를 통괄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이들 부분에 전주에 대한 민주현의 인상과 식견이 응축되어 있다.

구경가새 구경가새	完山府 구경가새
北斗以南 第一江山	風氣도 조홀시고
麒麟峯 솟았난대	鉢峯도 들너 잇다
節彼南山 維石巖巖	어인 胡僧 장재 선고
원便에난 梨木臺오	을은便에 梧木臺라
뽕죽뽕죽 完山七峯	蔚蔚蔥蔥 佳氣로다
乾止山은 北에 잇고	坤止山은 南에 잇다
將軍은 어대 가고	투구 벗어 峯에 둔고 【1~16구】

그는 전주를 천하에서 제일가는 풍광과 좋은 풍속을 지닌 곳으로 평가하면서 기린봉과 발봉을 먼저 거론하였다. 기린봉은 『완산지(完山誌)』에서 “빼어난 기운이 하늘을 찌른다.[秀氣插天.]”라고 표현했던 전주의 대표적 명산이다.²⁰⁾ 부(府)의 동편에 위치해 있어서 기린봉 위로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재(秋齋)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이 전주팔경(全州八景)을 읊을 때에도 그 모습을 기린봉이 달을 토해 낸다고 칭찬 바 있다.²¹⁾ 한편, 모양이 승려들의 바리때와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발봉 또는 발산(鉢山)은 부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²²⁾ 기린봉에 비해 야트막하면서도 둥근 산세를 띠고

20) 『완산지』 권상. [전주시·전주문화원 편, 앞의 책, 34면.] 기린봉은 서거정의 〈패향십영〉에도 포함되었다: 서거정, 〈沛鄉十詠〉, 『사가지집』 권45. “山河磅礴瑞輪困, 仙李盤根奔葉春. 豐鎬由來形勢異, 請君來此看麒麟.” [『한국문집총간』 11, 민족문화추진회, 1988, 48면.]

21) 조수삼, 〈麟峯吐月〉, 『추재집』 권3, [『한국문집총간』 271, 민족문화추진회, 2001, 401면.] “麟峯雙鬢碧嵯峨, 秋月迢迢漾素波. 五木臺前黃葉盡, 南川橋上醉人多.”



【그림 1】 <완산가>에 언급된 전주의 지세
[1872년의 전주지도 [서울대 규장각 소장]]

있는데, 민주현은 기린봉의 우뚝한 모습과 발봉의 평탄한 모습을 대조하여 전주의 전체적인 산세를 개관하였다. 잇달아 언급한 ‘호승(胡僧) 장자(長子)란 승암(僧巖)을 뜻하는 표현으로, 중이 염불을 하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지명의 유래가 반영되어 있다. 한편 승암은 발봉의 이남에 있고 산세도 주변보다 더 험해서 그러한 형세를 『시경』의 일절을 가져 와 표현하기도 하였다.²³⁾ 시아는 다시 발봉 기슭의 이목대와 오목대로 옮겨간다. 이목대는 태조의 고조이자 전주에 거주한 마지막 조상인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 ?~1274)의 구거

22) 전주가 왕조의 발상지이자 전주 이씨 본향이라는 점 때문에 조선조에 들어서는 발산을 ‘발리산(發李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김규남·이길재, 『지명으로 보는 전주 100년』, 전주: 신아, 2002, 12면.]

23) 『詩經』, 「小雅」, 〈節南山之什〉. “節彼南山, 維石巖巖, 赫赫師尹, 民具爾瞻.”

지로 알려진 곳이고, 오목대는 황산대첩을 승전으로 이끈 태조가 개경으로 개선하기 전 전주에 들러 전주 이씨 족친들에게 주연을 베풀었던 곳으로 유명한 장소이다. 둘 모두 자연 지형이면서 전주가 왕실의 본향이라는 의미를 현출하는 곳이기도 한데, 민주현이 이 두 곳을 함께 제시하였던 것 역시 전주의 산세에 녹아 있는 풍패향으로서의 위상을 환기하고자 했던 의도로 파악된다.

이렇게 전주부의 남동쪽에 위치한 주요 지형을 개관한 후, 민주현은 방위를 한 차례 바꾸어 남서쪽의 지맥을 훑어 나가기 시작한다. 이쪽 방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지세는 역시 완산이다. 전주의 대칭으로도 쓰이는 완산에는 곳곳에 봉우리가 벌여 있어서 예로부터 그 주요한 것들을 모아 ‘칠봉’으로 칭하는 관습이 존재해 왔다.²⁴⁾ 민주현은 그러한 칠봉의 모습을 ‘뽕죽뽕죽’하다고 하고 봉우리들 사이에 우거진 삼림은 ‘울울창창’하다고 하여 일대의 풍경을 대구로 엮어 표현하였다. 한편, 완산의 동쪽 자락에는 전주의 남산에 해당하는 곤지산이 솟아 있는데, 이 산은 전주의 진산(鎭山)인 건지산과 짝을 이루어 남북 산세의 축을 형성한다.²⁵⁾ 완산을 다루는 중에 민주현이 돌연 건지산과 곤지산을 언급한 것은 곤지산이 완산의 한 자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두 구는 완산칠봉 중 가장 높은 ‘장군봉’과 그 북동쪽에 위치한 ‘투구봉’을 다루고 있다. 실상 장군봉의 ‘장군’은 장군의 형상과는 무관하게 단지 으뜸이라는 의미를 표출하기 위한 명명인 반면, 투구봉의 ‘투구’는 그 모양이 투구와 닮았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여 민주현은 장군은 어디 간지 모르겠고 그가 벗어 놓은 투구만 봉우리에 남아 있다 하여 두 지명을 묘미 있게 엮어 희작하였다.

이처럼 〈완산가〉의 첫 부분에서 민주현은 남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방위를 옮겨 가며 전주의 지세를 개관하였는데, 남쪽 지역의 산세가 그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방의 산과 하천을 기계적으로 훑어나가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신의 주관으로 전주의 주요한 지맥과 승경을 가늠하는

24) 김규남·이길재, 앞의 책, 22면.

25) 『완산지』 권1, [전주시·전주문화원 편, 앞의 책, 30면.]

한편, 연관되는 지형들을 들쭉 짝 지어 속도감 있게 내용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승암, 장군봉, 투구봉 등에 대하여 서술한 내용을 보면 그는 전주의 산세는 물론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까지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

3.2. 전주의 역사에 대한 회고

앞부분에서 전주를 공간적으로 조망하였다면,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시간적 축으로 전주의 역사를 종단하였다.

一千年前	굽어본 즉	治亂相尋	하단 말가
甄萱將軍	무삼 일노	一方에	竊據하여
豺豨虎躍	數十載에	生民塗炭	하얏스며
神劍龍劍	亂臣賊子	金山佛堂	가이엿다
龍飛鳳舞	조흔 山水	눌 爲하여	생것난고
扶輿磅礴	이런 氣勢	異人을	篤生한이
將軍樹	이 山中의	虎隕石	저 江邊의
無知한	山城別將	焉敢이나	犯할소나

【17~32구】

민주현은 전주의 천년 역사를 일갈하여 ‘치란상심(治亂相尋)’이라 했는데, 이 중 ‘난(亂)’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견훤(甄萱, 867~936)의 사적이다. 견훤이 전주에 도읍을 정한 때는 나라를 세운 지 8년째가 되는 900년으로, 견훤의 행적에 대하여 민주현은 ‘절거(竊據)’나 ‘시탐호약(豺豨虎躍)’과 같은 표현을 써서 원연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시선은 이미 고려조로부터 원연하여 조선조에 들어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다. 가령 『동국통감(東國通鑑)』에서는 견훤을 평하면서 그의 죄악이 가득 쌓여 하늘이 노하고 사람들이 원망하였다고 기록하였고, 서거정은 <패향십영>에서 견훤을 ‘교활한 적[猾賊]’이라 칭하였다.²⁶⁾ 민주현 역시 견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으나, 아들들에 의해 금산사(金山寺)에 유폐된 그의 패망에 대해서만은 ‘가이없다’라고 서글프

게 회상하였다.

그러한 ‘난’에 상대되는 ‘치(治)’의 역사는 응당 조선왕조의 창업과 관련된 내력으로 서술된다. 용이 날아오르고 봉이 춤을 추는 듯한 전주의 산수와 아름다운 기운이 응축된 전주의 기세 속에서 비로소 ‘이인’, 즉 목조 이안사가 탄생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그와 관련된 전승으로 ‘장군수’와 ‘호운석’을 제시하였는데, 두 전승은 목조가 지닌 왕자(王者)로서의 자질과 목조에게 깃든 천조(天助)를 부각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전주가 왕조의 발상지라는 점을 현시하는 데에도 소용될 수 있는 설화이다.²⁷⁾ 민주현 역시 두 전승을 통해 목조의 자취가 완전한 전주의 위상을 드러내려 하였다. 표현상으로도 그러한 의도가 묻어나거니와, 그는 장군수와 호운석의 위치를 각각 ‘이’와 ‘저’, ‘산중(山中)’과 ‘강변(江邊)’으로 대를 맞추어 제시하였다. 이로써 목조의 자취가 전주 전역에 편만해 있다는 인상을 표출하였던 것이다.

장군수와 호운석이 목조의 유년기 사적이라면, ‘산성별장(山城別將)’과의 다툼은 장년기 사적에 해당한다. 목조가 아끼던 관기를 개경에서 내려온 산성별

26) 『동국통감』 권13, 4a면, “蒼旣得志, 驕暴日甚, 侵犯隣國, 毒痛生靈, 數十年之間, 兵連禍結, 罪盈惡積, 天怒人怨.”; 서거정, 〈沛鄉十詠〉, 『사가시집』 권45, “猶賊當時事險微, 蕭牆奇禍不堪譏, 可憐四十年間業, 城郭依稀鶴語非.” [『한국문집총간』 11, 민족문화추진회, 1988, 48면.]

27) 장군수 전승은, 어릴 때 목조가 나무 아래에 단정하게 앉아 있으면 마을 아이들이 앞에 늘어서서 절을 하니 그 모습이 마치 관아에서 조회를 하는 것과 같았다는 이야기로, 목조가 지닌 왕자(王者)로서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호운석 전승은 목조에게 깃든 천조(天助)를 현시하는 이야기이다. 목조가 마을 아이들과 발산의 남쪽 기슭에서 놀다가 비를 만나 다 같이 바위굴로 피하자 큰 호랑이가 굴 앞을 가로 막고 울부짖는다. 옷을 벗어 던져 호랑이가 무는 옷의 입자가 동굴 밖으로 나가기로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목조의 것을 물었고 이에 목조가 굴 밖으로 나가니 때마침 동굴이 무너져 모두 죽고 목조만 살아남았다고 한다. 『완산지』에서는 그때 굴이 무너지면서 굴러 떨어진 돌이 한벽당 앞쪽 1리 지점에 당시까지도 남아 있다고 기록하였다. [『완산지』 권1, [전주 시·전주문화원 편, 앞의 책, 185-186면.]] 이 두 이야기의 특징과 전승 양상에 대해서는 김승우, 「목조 이안사에 관한 전승 연구: 장군수·호운석 설화의 특징과 전승 양상」, 『어문론총』 74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 189-217면에서 상세히 검토된 바 있다.

장이 탐내면서 갈등이 생겼고 화를 피하려 목조가 기술을 이끌고 전주를 떠나니 2백 호가 그를 삼척과 경흥으로 붙좃아 왔다는 일화이다. 산성별장과의 불화는 목조가 전주를 떠나는 계기가 되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목조의 자손들이 북방에서 왕조의 터전을 닦게 된 동인이 되었다. 결국은 목조가 산성별장을 피해 도망을 다녔던 셈이지만, 민주현은 왕자의 자질을 지닌 목조를 무례하고도 무지한 산성별장 따위가 감히 범할 수는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²⁸⁾

견훤과 목조를 축으로 전주의 천년 역사를 회고한 사례는 그의 한시에서도 발견된다.

佳麗完城擅小華
畫樓綺閣影橫斜
土痕猶在甄郎堞
鉢下相傳聖祖家
戶戶冬靑爲翠屏
園園秋果作春花
千年豐沛昇平像
鬱鬱乾山繞紫霞²⁹⁾

아름다운 전주성은 작은 중화와 다름없고
화려한 누각은 그림자가 가로 비껴 있다.
땅에는 여전히 견훤의 성첩이 남아 있고
발산 아래엔 성조(聖祖)의 집이 있었다고 전하네.
집집마다 사철나무는 비취 빛깔 병풍이 되고
과수원마다 가을 과일은 봄꽃을 만들도다.
천년의 풍패는 태평성세의 상징이요
울창한 건지산엔 자줏빛 노을 둘러 있다.

전주의 객사(客舍)인 풍패관(豐沛館)에서 청하(靑霞) 권극중(權克中, 1585~1659)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다. 중화를 방불케 하는 전주성의 풍광과 화려하고도 웅장한 풍패관의 외관을 언급한 후 견훤과 목조를 잇달아 제시하면서 전주의 역사를 되짚었다. 이 작품에는 “부의 북쪽 5리에는 견훤의 토성이

28) 『태조실록』과 『용비어천가』에서는 개경에서 온 관리의 직을 ‘산성별감(山城別監)’이라고 하였다. [『태조실록』 권1, 「총서」; 『용비어천가』 권1, 5a면.] 산성별감과의 불화로 목조가 전주를 떠난 사건은 『용비어천가』 제3, 17, 18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29) 민주현, <豐沛館 次權靑霞【克中】韻>, 『사애집』 권1, [『한국문집총간(속)』 129, 한국고전번역원, 2011, 63면.]

남은 옛터가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목조의 집이 발산의 남쪽에 있었다고 한다.[府北五里, 有甄萱土城遺址, 世傳穆祖家于鉢山之陽.]”라고 주석을 붙였다. 시간적으로는 천년 전 견훤으로부터 오백년 전 목조에 이르는 전주의 역사를 훑어 내렸고, 공간적으로는 부성 안의 풍패관에서 시작하여 부의 북쪽에 있는 견훤의 토성과 부의 남쪽 발산 기슭에 있는 목거의 구거지를 중단하면서 전주의 유적지를 조망하였다. 평화롭고도 풍족한 부성의 풍광을 묘사하면서 천년을 헤아리는 풍패향의 위상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한편으로, 건지산에 드리운 상서로운 노을빛을 묘사하면서 작품을 종결짓고 있다.

萬歲長春 仙李꽃	根本따이 여기로다	
漢 乾坤의 豐沛오	唐 天子의 隴西로다	
聖朝 昇平 五百年에	山高水清 漠然하다	
物衆地大 節度府의	五十三州 管轄한이	
連衽成帷 揮汗成雨	臨淄城中 예 안인가	
四時嬉遊 歌鼓相聞	杭州百姓 이럿튼가	【33~44구】

〈완산가〉의 다음 부분에서는 왕가의 본향이 바로 전주라는 점을 거듭 부각하였다. 아울러, 민주현의 시대까지 오백년 가까운 역년을 유지해 온 왕조의 유구한 역사를 되새기면서 전주의 당당한 기풍을 드러내었다. 예로부터 전주는 물산이 풍부한 큰 도회로 인식되어 왔거니와,³⁰⁾ 민주현 또한 이 점을 언급하는 한편 전주가 전라도 53개 군현을 관할하는 호남의 으뜸 고을임을 강조하였다. 전주성의 변화한 모습과 이곳 백성들의 풍족한 삶은 각각 임치성(臨淄城)의 풍광과 항주(杭州) 백성들의 일상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태평하고도 풍족하다고 여겼던 것이다.³¹⁾

이렇듯 민주현은, 견훤 시대의 ‘난’이 목조의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치’로

30) 각주1) 참조.

31) 『史記』 권69, 「蘇秦列傳」. “臨菑之塗, 車轂擊, 人肩摩, 連衽成帷, 舉袂成幕, 揮汗成雨, (…).”

평정되었으며, 목조에 의해 촉발된 왕조 창업의 자취와 영광이 자신의 시대에도 전주에 뚜렷이 남아 있다는 시각으로 전주의 천 년 역사를 통괄하였다. 견훤과 목조 각각에 대한 평가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일반적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민주현이 견훤과 목조를 시종 함께 언급하였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견훤과 대비되는 목조의 면모를 한층 드러나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왕가의 시조를 모시는 직책으로 전주에 와 있는 민주현에게 목조의 위상은 더욱 중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민주현의 눈에 비친 19세기 전주의 풍광과 문화

〈완산가〉의 전반부 가운데 앞부분에서 전주의 지세와 역사에 대해 개관하였다면, 뒷부분에서는 전주의 주요한 명소들을 나열하면서 각 공간의 특색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작자의 감회를 표출하였다. 민주현이 각 지점들에서 주목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는지를 관련 제영시 및 읍지의 기록과 견주어 검토하고, 지점과 지점 사이를 이동하는 방식 내지 맥락도 함께 되짚어 보고자 한다.

4.1. 옥류동과 한벽당의 청아한 풍취

민주현이 첫 번째 경관으로 꼽은 장소는 발산 기슭에 있는 옥류동인데, 옥류동은 전주 출신의 문인인 월당(月塘) 최담(崔澗, 1346~1434)이 살았던 곳으로 전해지는 마을이다.

山下도 아름답고
玉流洞 차저간이
石間의 맑은 샘

景致도 가득하다
月塘 處士 어대 가고
잇기가 피였는가

【45~50구】

최담은 고려조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홀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낙향하였으며,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천거로 봉상시(奉常寺)에서 관직 생활을 하다가 정종2년(1400)에 다시금 낙향하여 유유자적했던 인물이다.³²⁾ 순조27년(1827)에 최담의 후손들이 유허비를 세워 그의 옛 거처를 표시하였는데, 『사애집』에 수록된 한시에도 이 비석이 언급된 것을 보면,³³⁾ 민주현은 비석 주변의 풍경을 통해 최담의 자취를 되새겼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한시에서는 “신선이 멀리서 놀러 온다[仙遊遠]”라거나 ‘호량(濠梁)과 복수(濮水)의 취향[濠濮趣]’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옥류동의 탈속적 정경을 묘사하였다.³⁴⁾ “돌길에 이끼 가득 피어 나그네 드물게 온다[石逕苔滋客到稀]”라고 할 정도로 인적이 뜸하지만, 그러한 적막함이 서글픈 정서로 이어지기보다는仙境(仙境)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한편 <완산가>에서도 “잇기가 피였는가”라는 어구로 옥류동의 한적함을 표현하였으나, 그 어조는 한시와는 반대로 나타난다. 특히 “월당(月塘) 처사(處士) 어대 가고”라는 말에 서글픈 심사가 역력하게 담겨 있다. 민주현은 전주 지역의 유력한 문사인 최담의 자취를 애써 찾아보았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그 흔적이 너무나도 퇴락해서 최담의 기풍을 별반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석간(石間)에 맑은 샘이 있어서 청담한 옛 풍모를 짐작할 수 있었으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스산함마저 느껴지는 유허의 풍경에는 애석함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32) 송치규, 「月塘崔公遺墟碑」, 『강재집』 권8. [『한국문집총간』 271, 민족문화추진회, 2001, 168면.] “性好學, 舉業中司馬試於壬寅, 仕內侍, 拜參官, 又中丁巳文科, 不勝將母之念, 退于桑鄉, 子職極修, 而仍喜遜自樂, 不求宦達. 丙子, 爲賢相所薦, 以奉常少卿應命. 戊寅, 拜中訓知珍州事. 庚辰, 解組還鄉, 日以花木詩句爲事, 而優遊自適.”

33) 민주현, <遊玉流洞【洞卽崔月塘遺墟 有碑】>, 『사애집』 권1. [『한국문집총간(속)』 129, 한국고전번역원, 2011, 62면.] “芒鞋步步叩巖扉, 物外翛然坐翠微, 林鳥愛山終日語, 官娥汲水夕陽歸, 蓮塘月滿仙遊遠, 石逕苔滋客到稀, 此地便深濠濮趣, 柴門咫尺是漁磯.”

34) ‘호복취(濠濮趣)’란 장자가 혜자(惠子)와 같이 호량(濠梁)의 위에서 노닌 것과 장자가 복수(濮水)에서 낚시질한 것을 가리킨다. 모두 청담(淸淡)과 무위(無爲)를 뜻한다.

寒碧堂	높은 집의	層層이	올나간이	
네	벽에	싸인	懸板	안이
저	江가의	뜨난	白鷗	무삼
南固寺	저문	쇠북	醉한	손이
			다	깨더라

【51~58구】

두 번째 경관으로 제시한 한벽당은 전주에서 가장 이름 높은 누각인데, 옥류동이 최담의 구거지였다면 한벽당은 그가 벼슬에서 물러나 귀향하여 지어 놓고 풍류를 즐겼던 곳이다. 이곳에서 조망하는 일대의 경관은 예로부터 유명하였기에 한벽당은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를 접대하거나 지방관을 위해 여흥을 베푸는 장소로 널리 활용되었다.³⁵⁾ 전주를 방문하는 문사와 풍류객들은 응당 한벽당을 찾아 주연을 즐기고는 하였으므로 이곳에서 “안이 논 이 엽다서라”라고 한 <완산가>의 표현이 적실하다고 할 만하다. 한벽당 제영시가 다수 지어진 것 역시 이러한 명성 때문인데, ‘네 벽(壁)에 싸인 현판(懸板)’이라는 구에서 드러나듯이 민주현 당대에도 제영시들이 누각에 여럿 걸려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민주현 또한 전주에 머무는 동안 한벽당을 수차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벽당에 관해서는 네 편의 시를 지었으며, 그 중 두 편은 한벽당에 걸려 있던 제영시에 차운한 것이다.³⁶⁾

百里烟花睡	백 리길 화려한 꽃 드리운 곳
甄王去後州	견훤이 지냈던 고을이로다.
巖端臺樹壯	바위 끝 한벽당은 장엄하고
物外水雲幽	세상 밖 행운유수 그윽하다.
黃鳥來三月	피꼬리 돌아오는 삼월이오,
白鷗泛幾秋	흰 갈매기 물에 떠 있는 지 몇 해던가?

35) 정훈, 앞의 논문(2006), 212면.

36) 민주현 <寒碧堂 次壁上韻>: <又次壁上韻>: <寒碧堂設會>: <余將出直下鄉 舊日詩伴會于寒碧堂 以詩餞別 共十二人>, 『사에집』 권1. [『한국문집총간(속)』 129, 한국고전번역원, 2011, 61-64면.]

登臨塵慮斷
湖海一高樓³⁷⁾

한벽당에 올라 세속의 근심 사라졌으니
세상 제일의 높은 누대로구나.

그 가운데 한 수인 위 차운시는 전주에 내려온 이듬해 봄에 지역 인사들과 함께 전주 유람을 하면서 지은 것으로 파악된다. 발산의 바위 기슭에 위치한 한벽당의 위엄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 고상한 풍치를 읊은 후, 이어서 ‘황조(黃鳥)’와 ‘백구(白鷗)’를 대구로 엮어 제시하였다. 황조는 한벽당에 깃든 봄빛을 보여주는 소재인 데 비해, ‘백구’는 한벽당의 입지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한벽당은 발산과 전주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서 누각에 오르면 전주천이 굽이쳐 흘러가는 장관을 보게 된다. 특히 비가 갠 후 한벽당에 올라 굽어보는 전주천의 물안개 피어오르는 광경은 ‘한벽청연(寒碧晴烟)’이라 하여 전주팔경의 하나로 꼽을 정도였다.³⁸⁾ 한가로이 물에 떠다니는 백구의 모습은 그러한 전주천의 풍경에 운치를 더하기에 충분하다. 민주현은 바로 그 백구가 한벽당 아래에서 노닐 지가 몇 해나 되었느냐고 물으면서 유서 깊은 한벽당의 역사를 되새겼다. 세상의 번민을 잊고 초연히 노니는 백구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하면서, 그렇듯 자재한 심경을 지니게 해 준 한벽당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누각이라고 극찬하였던 것이다.

〈완산가〉에서도 역시 한벽당에서 굽어보는 전주천을 언급하면서 백구를 주요 소재로 등장시켰다. 또한 ‘범(泛)’과 ‘뜨난’, ‘진려(塵慮)’와 ‘물루(物累)’라는 유사한 시어가 쓰이기도 해서 두 작품 사이의 친연성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한벽당의 탈속적 풍류가 공히 백구를 통해 형상화된 것이다. 한시에서는 세속의 근심을 잊은 이가 화자 자신으로 제시된 반면, 〈완산가〉에서는 세상의 거리낌을 초월한 존재가 백구로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백구와 화자는 일체화된

37) 민주현, 〈寒碧堂 次壁上韻〉, 『사에집』 권1. [『한국문집총간(속)』 129, 한국고전번역원, 2011, 61면.]

38) 조수삼, 〈寒碧晴烟〉, 『추재집』 권3. [『한국문집총간』 271, 민족문화추진회, 2001, 401면.]
“遠視迷離近即空, 一川寒碧漾冥濛. 隔村多少斜陽樹, 只坐輕籠淺抹中.”

상태이므로 두 작품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완산가〉에는 한시에는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정취가 나타난다. 저물 녘 들려오는 남고사(南固寺)의 청아한 종소리에 취기가 셋길 정도라고 하였는데, 남고사의 저녁 종소리 역시 ‘남고모종(南固暮鐘)’이라 하여 전주팔경의 하나로 일컬어져 왔다.³⁹⁾ 남고사는 한벽당의 남쪽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남고사의 종소리가 한벽당에까지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 때문에, 일찍이 조수삼은 전주팔경을 읊으면서 ‘한벽청연’에 잇달아 ‘남고모종’을 배치하였으며, 가객 안민영(安旻英, ?~?)도 한벽당에 올라 지은 시조에서 남고사의 종소리를 함께 언급한 바 있다.⁴⁰⁾ 민주현 또한 한벽당에서 조망하는 한적한 풍광과 남고사에서 들려오는 고즈넉한 종소리라는 시각적·청각적 심상을 한데 엮어서 한벽당의 운치를 더욱 강조했던 것이다.

이처럼 〈완산가〉에 나열된 전주의 여러 명소 가운데 월당 최담의 자취가 남아 있는 옥류동과 한벽당이 앞머리에 제시된 것은 사대부 관료인 민주현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옛 문인의 풍모를 되새길 수 있는 이들 장소에 그의 이목이 보다 쉽게 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현의 관점으로는 옥류동과 한벽당이야말로 전주의 여러 승경 중 가장 먼저 둘러보아야 할 장소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조선후기에 전주를 찾은 사대부 문인이라면 응당 동의할 만한 것이기도 하다.

4.2. 만경대에 서린 충정과 애환

민주현이 만경대에 주목한 이유도 옥류동이나 한벽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39) 조수삼, 〈南固暮鐘〉, 『추재집』 권3. [『한국문집총간』 271, 민족문화추진회, 2001, 401면.]
“城郭鍾聲何處聞, 上方斜日下方曛, 回頭更欲尋初地, 惟見空山多白雲.”

40) 『금옥총부』 #82. “百尺 紅橋上에 오고 가는 스름드라 / 寒碧堂 雨後 景을 알고 저리 즐기느냐 / 夕陽에 南固 鐘聲을 더욱 조히 너기노라.”

萬景臺에 높히 빅여 風物을 四望한이
 圃隱 先生 가신 後에 石壁上의 글만 잇다
 天涯日沒 浮雲 呑한이 玉京 못 본 恨이로다 【59~64구】

만경대는 견훤의 옛 성곽인 남고산성의 북쪽에 위치한 돈대로, 부성과 그 일대가 한 눈에 들어오는 곳이어서 예로부터 전주의 주요한 경관으로 이름이 높았다.⁴¹⁾ 『청구영언』 진본(珍本)에는 만경대에서 기녀와 악공을 동반하여 흥성한 연회를 벌이는 광경을 담은 사설시조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⁴²⁾ 이로 미루어 만경대에서 전주부를 조망하며 벌이는 주연이 전주의 풍류로 인식되었던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만경대는 또 한편으로는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1392)를 기리는 곳으로 회자되기도 하였다. 우왕6년(1380)에 이성계가 삼남에 침노한 왜적을 격파하고서 개선하는 중에 전주에 들렀을 때 서장관으로 종군했던 정몽주가 이곳 만경대에 올라 국운을 걱정하는 시를 지은 바 있기 때문이다.⁴³⁾ 이렇듯 만경대가 충의(忠義)의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던 시기는 18세기 중엽 이후로 추정되며 이 무렵인 영조22년(1742)에 진장(鎭將) 김의수(金義壽)가 만경대 인근에 정몽주의 시를 석각하기도 하였다.⁴⁴⁾

민주현이 착목했던 것 역시 정몽주의 충심이다. 만경대의 묘미는 전주부를

41) 만경대는 서거정의 <패향십영>에도 포함되었다: 서거정, <沛鄉十詠>, 『사가시집』 권45, “臺高千仞倚靑空, 俯仰乾坤萬里通, 莫說甄郎興廢事, 靑山默默鳥飛中.” [『한국문집총간』 11, 민족문화추진회, 1988, 48면.]

42) 『청구영언』(진본) #529. “完山裏 도라 드러 萬頃臺에 올라 보니 三韓 古都에 一春光景이라 / 錦袍 羅裙과 酒肴 爛熳흔디 白雲歌 흔 曲調를 管絃에 섯거 내니 / 丈夫의 逆旅 豪遊 名區 壯觀이 오늘인가 ㅎ노라.”

43) 정몽주, <登全州望景臺>, 『포은집』 권2, [『한국문집총간』 5, 민족문화추진회, 1988, 593면.] “千仞岡頭石徑橫, 登臨使我丕勝情, 靑山隱約扶餘國, 黃葉繽紛百濟城, 九月高風愁客子, 百年豪氣誤書生, 天涯日沒浮雲合, 惆悵無由望玉京.”

44) 만경대가 충의의 공간으로 정립되는 과정은 정훈, 앞의 논문(2010), 351-378면에서 검토되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이서구(李書九, 1754~1825), 한장석(韓章錫, 1832~1894) 등의 작품에 이르러서야 만경대에 어린 정몽주의 이미지가 완전히 강조되었다.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시야이지만, <완산가>에서는 그러한 시야에 대해 “풍물(風物)을 사망(四望)한이”라는 정도로만 언급한 후, 곧바로 석벽에 새겨진 시를 통해 정몽주의 모습을 회고하였다. ‘만경대(萬景臺)에 놓히 빅여’에서 ‘빅여’라는 어휘도 정몽주 시의 첫 구에 쓰인 ‘횡(橫)’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민주현은 시의 미련에 주목하였다. 정몽주는 멀리 하늘가에 해가지고 뜬구름이 모여들어 더 이상 개경을 바라볼 수 없게 된 서글픔을 말하면서 시를 맺은 바 있다. <완산가>에서는 이 시구를 직접 가져 오는 한편, 정몽주가 임금을 그리워하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느꼈을 한스러움을 ‘옥경(玉京) 못본 한(恨)’이라고 대신 토로하였다.

한편, 정몽주의 시에 차운한 다음 작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발견된다.

高臺碑兀半天橫	높은 대가 우뚝 솟아 허공에 비껴 있어
暇日登臨絕俗情	한가한 날 만경대 올라 세속의 정을 끊는다.
圃老修名千仞壁	포은 선생의 명성은 천 길의 벽에 남아 있고
甄家往事數重城	견훤의 지난 일들이 겹겹 성에 있다.
茫茫海氣連雲闊	망망대해의 기운은 이어진 구름에 넓게 펼쳐 있고
點點人烟蔽野生	군데군데 인가에는 폐해진 들에서 연기 피운다.
皓首潛郎思渺渺	흰머리에 낮은 직책으로 생각은 가물가물한데
遙瞻官道走西京 ⁴⁵⁾	멀리 큰 길을 바라보니 서경으로 내닫는구나.

앞서 옥류동 및 한벽당에서와 마찬가지로 만경대에서도 민주현은 탈속적인 정취를 느끼고 있다. 석벽에 새겨진 시를 통해 정몽주를 추억하다가 시간을 더 소급하여 견훤의 일까지 회고하였는데, 이는 만경대가 견훤의 옛 산성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먼 하늘과 전주성 안의 풍경을 묘사하다가, 종결부에 이르러 돌연 서글픈 심회를 드러내었다. 늦은 나이에 겨우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45) 민주현, <萬景臺 謹次圃隱先生韻【在全州】>, 『사애집』 권1. [『한국문집총간(속)』 129, 한국고전번역원, 2011, 61면.]

미관의 직을 받아 전주에 내려 와 있는 자신의 처지가 애달프게 느껴진 탓이다. 전주부를 지나는 큰 길이 서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눈으로 따라가며 한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정몽주가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정으로 개경을 지향하였다면, 민주현은 순탄치 않은 환로를 비판하면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자신의 마음을 실어 보냈다. 도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 이유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만경대에서 민주현은 온통 정몽주를 기리는 데 시종하였다. 앞서 옥류동과 한벽당에서 최담의 청담한 지취를 찾았다면, 만경대에서는 정몽주의 충의를 되새겼던 것이다. 민주현이 옥류동·한벽당·만경대를 유람하고서 그날 밤 시침을 하러 온 기녀를 가까이하지 않았다는 일화를 통해서도 그가 최담과 정몽주에게 지니고 있었던 경건한 태도가 잘 드러난다.⁴⁶⁾ 민주현이 전주에 내려 와 처음으로 유람한 곳도, <완산가>에 처음으로 제시한 곳도 모두 옥류동·한벽당·만경대인 이유를 선유들에 대한 이 같은 존숭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

4.3. 공북루와 만화루의 장대한 기상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여러 장소를 훑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그 대상은 전주의 누대들이다.

東固寺 西固寺의	多少樓臺 煙雨中을	
大路가의 大野中の	拱北樓도 廣豁하다	
萬化樓를 나아간이	半空 樓閣 壯하도다	
濟濟한 學宮 선비	春誦夏絃 여기로다	[65~72구]

누대는 사대부들의 문화가 응축된 공간이자 교유의 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46) 각주16) 참조.

전주의 경관을 두루 유람하였던 민주현 역시 여러 누대를 방문하였으리라 추정된다. 동고사와 서고사는 모두 견훤이 창건한 사찰로 각각 승암산과 황방산(黃虜山) 중턱에 위치해 있다. 각각 동쪽과 서쪽에서 전주부를 굽어볼 수 있는 자리여서 두 절 주변에 크고 작은 누대가 있었으나, <완산가>에서는 이를 열거하지 않고 누대들이 안개비에 싸인 형상만을 간단히 조명하는 데 그쳤다. 산 주변에 있는 누대를 이렇게 개관한 후, 곧 시선을 평지로 옮겨 큰길과 넓은 들판에 세워진 공북루를 언급하였다. 공북루는 전주성의 북문인 공북문의 북서쪽에 있던 누각으로, 예로부터 임금에게 예를 올리던 곳이다.⁴⁷⁾ 서거정의 <패향십영>에도 포함되었던 명소인데,⁴⁸⁾ 민주현 역시 들판에 우뚝 솟은 공북루를 거론하며 그 광활한 기풍을 기렸다.

이로 미루어 보면, 민주현은 단순히 풍경이 아름다운 누각보다는 유서 깊고 의미가 있는 누각을 보다 선호하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만화루를 찾은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전주향교의 문루(門樓)인 만화루는 선비들이 모여 시를 읊조리며 한가로운 정취를 느끼던 곳인데,⁴⁹⁾ 평지에 세운 누각이어서 과히 높지 않기 때문에 ‘반공(半空) 누각(樓閣)’이라 하였으나 향교의 문루로서 지니고 있는 만화루의 당당한 위상은 장엄하다고 표현하였다. 민주현은 유망한 여러 학도들이 사시사철 학문에 매진하는 요람이 바로 이곳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만화루를 직접 본 벽찬 감회를 드러내었다.

한편,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1492) 역시 만화루를 찾아 시를 지었거니와,⁵⁰⁾ 여기에 차운한 민주현의 작품이 『사애집』에 남아 전한다.

47) 서거정, 『全州拱北亭重新記』, 『사가문집』 권2. “府之北五里有亭, 曰拱北. 朝廷布德音有使命, 則府尹率僚吏具冠帶, 敬禮郊迓于此, 若遇正至誕辰, 及國家大慶大瑞, 則府若州各具棧, 望闕禮送于此.” [『한국문집총간』 11, 민족문화추진회, 1988, 211-212면.]

48) 서거정, <沛鄉十詠>, 『사가시집』 권45. “北望神州稽首欽, 華山高聳碧抽簪, 南州冠蓋多於織, 戀闕思君只此心.” [『한국문집총간』 11, 민족문화추진회, 1988, 49면.]

49) 『완산지』에 수록된 양몽열(梁夢說, 1565~1627)의 글에 만화루와 관련된 언급이 보인다: 『완산지』 권上 [전주시·전주문화원 편, 앞의 책, 145면.] “(…) 且念舊校有萬化樓, 以爲士子諷詠舒暢之所, 不可不依舊制, 而竝建之也.”

杏樹壇西關一堂	행수단(杏樹壇) 서쪽에다 집 하나 만든 것을 보니
煥輪頗覺衆工良	아름다움에 수많은 장인들의 솜씨를 알 수 있겠네.
虛空如臥堯夫閣	허공은 마치 누워있는 요부(堯夫)의 집이요,
美富宜窺孔氏牆	아름답고 화려함은 마치 공씨(孔氏)의 담벼락을 보는 듯.
浴浴林月秋來好	넉넉넉 숲에 뜨는 달은 가을이 오면 더욱 좋고,
獵獵溪風夏坐涼	나풀나풀 시내 바람은 여름에 앉았으면 시원하다.
寄語衿紳須共勉	여러 선비들에게 한 마디 붙이노니 다들 열심히 공부하라.
當行不止豆籩行 ⁵¹⁾	마땅히 전진하여 쉬지 말고 예를 행하라.

초두에서는 향교의 서쪽에 위치한 만화루의 입지를 이야기하였고, 잇달아서 만화루를 지은 공인들의 공로와 재능을 칭송하였다. <완산가>에서와는 달리 한시에서는 만화루가 하늘 높이 솟아 있다고 과장하였는데, 그만큼 민주현은 만화루의 장엄한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다.⁵²⁾ 앞에서 공간을 축으로 하여 만화루의 위치와 형상을 서술하였다면, 경련에서는 시간을 축으로 계절의 변화를 다루어, 계절마다 각각의 운치를 지니고 있는 만화루의 풍광을 고즈넉하고도 청량하게 묘사하였다. 마지막은 향교의 학도들에게 부친 당부이다. 민주현 자신이 문과 급제자인 만큼, 간단없이 근면하게 공부하여 학문을 이루고 청운의 꿈을 펼쳐야 한다는 당위를 학도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얼핏 통상적인 언사인 듯 보이지만, 젊은 후학들을 향한 진심 어린 당부임이 분명하다. 전주에 머무는 동안 민주현은 이가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쇠약해져 가는 자신의

50) 김종직, <全州鄉校萬化樓次韻>, 『집필재집』 권22. [『한국문집총간』 12, 민족문화추진회, 1988, 376면.] “庠序依依闕里堂, 藏修盡是楚材良, 鳶魚浩浩分天地, 絃誦洋洋堵塔牆, 水灑芳池襟抱淨, 風搖文杏笑談涼, 一年鼓舞吾無術, 慚負樓前游夏行.”

51) 민주현, <萬化樓 謹次佔畢齋先生韻【全州鄉校門樓】>, 『사예집』 권1. [『한국문집총간(속)』 129, 한국고전번역원, 2011, 62면.]

52) 인용된 시에서 ‘요부(堯夫)’는 소옹(邵雍, 1011~1077)을 말한다. 그가 낙양에 살 때 공중누각(空中樓閣)을 지어 자호를 ‘무명공(無名公)’이라 하였던 고사를 활용하였다. 또한 ‘공씨장(孔氏牆)’은 한 무제(漢武帝) 때 노(魯) 공왕(恭王)이 궁궐을 확장·수리하기 위해 공자의 옛집을 헐다가 벽장 속에서 과두문자(蝌蚪文字)로 쓰인 문헌을 다수 발견한 일을 말한다. 옷칠로 나무판에 쓴 글씨가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본 것이다.

모습을 서글퍼 하며 지은 시에서도 그는 ‘성한 이를 지닌 이들[壯齒人]’에게 수양하며 쉬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다.⁵³⁾ 늦은 나이에 급제하여 채 포부를 펼치기도 전에 이미 노쇠해진 자신의 전철을 후학들은 밟지 않기를 소원했던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민주현은 전주의 여러 누대들을 관심 있게 편답하였으나 허다한 누대 중에서도 특히 임금에게 예를 올리던 곳인 공북루와 전주향교의 문루인 만화루를 인상 깊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 누대가 대개 자연 경관을 조망하기 좋은 산기슭이나 산정에 위치해 있는 것과는 달리, 공북루와 만화루는 평지에 세워져 있어서 그곳에서 굽어보는 경관 자체는 별반 거론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민주현은 공북루와 만화루를 전주의 대표적인 누대로 거론하였다. 그에게 누대는 경관을 즐기기 위한 장소이기보다는 관료이자 유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이었던 것이다.

4.4. 덕진지의 종류

다음으로 제시된 덕진지는, 전주부의 지세가 남쪽은 높고 서북쪽은 허해서 기맥이 밖으로 새어 나간다 하여 건지산의 인근에 제방을 쌓아 물을 가두어 놓은 인공 연못인데,⁵⁴⁾ 이 덕진지에 이르러 비로소 풍류적인 감흥이 표출되기 시작한다.

德眞池上 넘은 亭子 金陵에서 나단 말가

53) 민주현, 〈落齒有感〉, 『사에집』 권1. [『한국문집총간(속)』 129, 한국고전번역원, 2011, 63면.] “一落猶堪惜, 落落當若爲, 落者不復生, 漸次稀如而, 梁肉味不知, 死期陔於茲, 寄語壯齒人, 修養無所虧.” 인용 작품은 〈落齒有感〉 2수 중 제2수이다.

54) 이 때문에 덕진지는 ‘덕진지’보다는 ‘덕진제(德津堤)’로 오랜 동안 불리어 왔고, 여러 고지도에도 ‘제’로 표기되었다. 덕진지가 조성된 내력과 연못 일원이 공원으로 단장되어 현재에까지 이르게 된 역사적 경과에 대해서는 홍성덕, 「전주의 기맥을 지키는 덕진공원」, 『전주대신문』 제817호, 2013. 12. 3., 6면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다.

十里荷花 滿發한이
賀知章의 鏡湖런가
蓮之愛 그 누 알이

平鋪紅雲 蓋明鏡을
茂叔 先生 濂溪인가
出於泥而 不染이라 【73~80구】

『완산지』에서는 덕진지에 대한 설명을 붙인 뒤에 시 두 편을 수록해 놓았는데, 한 편은 작자미상의 시로, 덕진지를 파는 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가을날 덕진지의 쓸쓸한 모습을 묘사하였다. 또 한 편은



【그림 2】 민주현의 작품에 언급된 전주의 승경
[1872년의 전주지도 [서울대 규장각 소장]]

노포당(老圃堂) 유순(柳詢, 1441~1517)의 시로, 덕을 쌓아 가둔다는 덕진지의 축조 목적을 작품에 언급하면서 풍패향이 지나는 상서로운 기운을 영탄조로 언급하였다.⁵⁵⁾ 이렇듯 덕진지에 대해서는 연못이 축조된 내력과 관련된 사항이 우선 주목을 받아 왔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덕진지 자체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풍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덕진지의 명물은 연못을 가득 덮고 있는 연꽃이다. 전주팔경 중에도 덕진지에서 연꽃을 판다는 ‘덕진채련(德津採蓮)’이 포함되었을 정도인데,⁵⁶⁾ <완산가>에서 주목한 것 역시 바로 이 연꽃이다.

먼저 민주현은 덕진지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자(亭子)’에 착목하였다. 이 정자는 현종대에 전라도 관찰사 이시재(李時在, 1785~?)가 창건한 승금정(勝金亭)으로, 덕진지 북쪽에 위치해 있다.⁵⁷⁾ ‘승금’이라는 이름에는 중국의 대표적 명승인 금릉(金陵)보다도 이곳 덕진지의 경계가 더 뛰어나다는 자감이 담겨 있는데, 민주현 또한 “금릉보다 낫단 말인가[金陵에서 나단 말가]”라는

55) 『완산지』 권1. [전주시·전주문화원 편, 앞의 책, 39-40면.] “德津池, 在府北十里. (...) 風月【失名】姓詩: “一望深淵映翠空, 古來開鑿幾人功. 村烟數里籠秋月, 漁笛一聲橫晚風.” 老圃柳海詩: “一泓澄澈映虛空, 蓄德仍收濟物功. 是處真龍如不起, 世間何地覓雷風.” 한편, 덕진지는 서거정의 <패향십영>에도 포함되는데, 서거정 역시 유순과 유사한 병식으로 덕진지의 의미를 드러내었다: 서거정, <浦鄉十詠>, 『사가시집』 권45. “以德名津語不空, 澤民曾有濟時功, 誰知泓臥龍行■, 十雨時能又五風.” [『한국문집총간』 11, 민족문화추진회, 1988, 49면.]

56) 조수삼, <德津採蓮>, 『추재집』 권1. [『한국문집총간』 271, 민족문화추진회, 2001, 356면.] “蓮唱初高刺掉頻, 水禽驚起綠粼粼, 畫舫漸入花深處, 一色紅粧不見人.” 고시조 작가 가운데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이세보(李世輔, 1832~1895) 역시 덕진채련을 다룬 시조 두 편을 짓기도 하였다: “승금지(勝金池)의 비를 띄여 어부수(漁父詞)로 화답(和答) 하니 / 월식(月色)도 도커니와 십니(十里) 연화(蓮花) 향기(香氣)롭다 / 아마도 동국(東國) 금능(金陵)은 옛본인가.” [『풍아』 #234.]; “계도(桂擢)를 흘니져어 치련곡(采蓮曲) 화답(和答) 하니 / 오희월녀(吳姬越女) 어디 가고 연화(蓮花)만 휘었느니 / 우리도 풍월(風月)를 잊고 경기(景概) 잊츠.” [『풍아』 #235.]

57) 광무3년(1899)에 제신(宰臣) 이재근(李載崐)이 승금정을 증건하고 이름을 화수각(花樹閣)으로 바꾸었다. [全州府 編, 앞의 책, 948면.]

설의를 통해 이 같은 자금을 표출하였다.

이어서 곧바로 연꽃의 장관이 펼쳐진다. 십리에 걸쳐 연꽃이 만발하였다는 표현으로부터 덕진지를 찾았던 시기가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못이 모두 연으로 뒤덮이는 이때야말로 덕진지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로 일컬어져 왔다. “평평하게 퍼진 붉은 구름이 잔잔한 수면을 덮고 있네[平鋪紅雲蓋明鏡]”라는 표현은 한유(韓愈, 768~824)가 곡강(曲江)에서 연꽃을 즐기며 지은 작품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⁵⁸⁾ ‘평평하게 퍼진 붉은 구름[平鋪紅雲]’이란 수면을 가득 메운 연꽃을 비유한 말이다. 잇달아서 민주현은 성당(盛唐) 시인 하지장(賀知章, 659~744)의 「채련곡(採蓮曲)」을 떠올리면서 그 무대가 된 경호(鏡湖)와 덕진지를 견주는가 하면,⁵⁹⁾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호인 ‘염계(濂溪)’를 하지장의 ‘경호’와 대구로 엮어서 제시하기도 하였다. 주돈이를 끌어 온 것은 그의 「애련설(愛蓮說)」 때문이다.⁶⁰⁾ “연지애(蓮之愛) 그 누 알이”라는 구와, 주돈이가 연을 좋아하는 이유로 제시한 여섯 가지 가운데 첫 번째인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구를 「애련설」에서 가져 와 연꽃에 대한 애호를 드러내었다. 연꽃을 예찬한 재래의 유명 시문들을 차용하여 연꽃 가득한 덕진지의 풍광을 묘사해 놓은 형상이다.

이처럼 덕진지의 승경에 경탄했던 민주현은 소식(蘇軾, 1036~1101)의 〈수조가두(水調歌頭)〉를 본 따 지은 사(詞)에서 보다 세세하게 감흥을 표출하였다.

58) 한유, 〈奉酬盧給事雲夫四兄曲江荷花行見寄并呈上錢七兄〉. “曲江千頃秋波淨, 平鋪紅雲蓋明鏡, 大明宮中給事歸, 走馬來看立不正, (…)”

59) 이 시에서 하지장은 경호의 물결이 바람 없이도 절로 인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못이 가득 덮은 연이 출렁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민주현은 그러한 경계를 덕진지에서 떠올렸던 것이다. [하지장, 〈采蓮曲〉. “稽山罷霧鬱嵯峨, 鏡水無風也自波, 莫言春度芳菲盡, 別有中流采芰荷.”]

60) 주돈이, 「愛蓮說」, “水陸草木之花, 可愛者甚蕃, 晉陶淵明獨愛菊, 自李唐來, 世人盛愛牡丹, 予獨愛蓮之出淤泥而不染, 濯清漣而不妖, 中通外直, 不蔓不枝, 香遠益清, 亭亭靜植, 可遠觀而不可褻玩焉, 予謂菊 花之隱逸者也, 牡丹, 花之富貴者也, 蓮, 花之君子者也, 噫! 菊之愛, 陶后鮮有聞, 蓮之愛, 同予者何人, 牡丹之愛, 宜乎衆矣.”

豐沛北山趾	풍패의 북산 아래에
盡閣枕寒流	온 누각은 찬 물결을 베고 누었다.
誰知造物慳秘	누 알리오, 조물주의 아끼고 숨긴 것을.
幽絕一林丘	그윽하고 절묘한 온 숲이로다.
十里荷花爭發	십 리에 펼쳐진 연꽃들 서로 다투 피고
三秋桂子初熟	삼 년 간 핀 계수나무꽃은 비로소 익었으니,
何似杭西洲	얼마나 비슷하던가, 항서주(杭西洲)와.
鯨背謫仙去	고래 등을 타고서 적선(謫仙)은 떠나갔으니,
璇月古今愁 ⁶¹⁾ 【하락】	반달은 예나 지금이나 근심이로다. 【하락】

덕진지와 그 주변의 풍광이 조물주의 숨씨로 여겨질 만큼 아름다운 비경이라고 찬탄하였다. 덕진지는 본래 인공으로 조성한 못이지만, 그러한 인공의 흔적을 전연 찾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연못 가득 연꽃이 피어 있는 장관을 묘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수나무 열매가 때마침 익어가는 덕진지의 봄날 정취를 감각적으로 드러내었다. 민주현은 이내 신선의 세계를 상정하기에 이른다. 이백(李白, 701~762)이 술에 취해 채석강(采石江)에 비친 달을 따려다가 빠져 죽은 후 곧 고래의 등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고사를 떠올린 것이다.⁶²⁾ 덕진지의 풍광으로부터 바로 그 채석강을 연상하였기 때문이다. <완산가>의 후반부에서 민주현은 자신이 본래 옥황상제를 모시는 선관(仙官)이었으나 죄를 입고 적강(謫降)하여 처연한 처지로 살아간다고 한탄한 바 있거니와,⁶³⁾ 채석강에서 이백이 그러했던 것처럼 덕진지에서 자신도 선계로 회귀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은연한 심경이 위 작품에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끝내 그리 되지 못하리라는 서글픈 감회가 “반달은 예나 지금이나 근심에

61) 민주현, <勝金亭 水調歌頭 用板上韻>, 『사예집』 권1. [『한국문집총간(속)』 129, 한국고전번역원, 2011, 62면.]

62) 馬存, <燕思亭>. “李白騎鯨飛上天, 江南風月閑多年, 縱有高亭與美酒, 何人一斗詩百篇, (...)”

63) “나 本來 仙吏로서 / 玉帝의 香案 모셔 / 絲綸을 특허 맛고 / 黼黻을 빗내던이 / 偶然이 薄譴 입어 / 人間에 謫降한이 / 赤壁洞天 十里地의 / 鳳頂山房 清寒하다” 【89~96구】

짜여 있다[璇月古今愁]”라는 구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이렇듯 선계에 대한 동경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덕진지의 봄날 풍광은 민주현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연꽃이 출렁이는 덕진지의 승경에 완연히 매료되었던 것이다. 앞서 제시된 장소들에서 엄숙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 왔던 그가 덕진지에 이르러서는 고양된 감흥을 드러낸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간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도 언급할 만하다. 앞서 산기슭에서 시작된 전주 편력이 평지를 거쳐 이제 물가로까지 훑어온 것인데, 것처럼 공간의 변화가 정서의 변화와도 조응되는 양상이 〈완산가〉에서 발견된다.

4.5. 전주천변의 일상 풍경

전주의 풍경으로 마지막에 제시된 것은 전주천변의 일상이다. 이 부분은, 〈완산가〉의 두 이본 가운데 원본에 가까운 종가본에는 빠져 있고, 작자의 손녀 민씨 부인에 의해 암송된 송곡본에서만 확인된다. 두 본을 처음 소개한 하성래에 따르면, 작자의 종손이 원본을 전사할 당시 이 부분이 이미 떨어지고 없어서 누락하고 적었다고 한다.⁶⁴⁾ 따라서 원본에는 덕진지를 다루고 난 이후 부분에 모종의 내용이 더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비록 암송본이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하지만 송곡본으로라도 이 부분을 재구하여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

後苑前川 花柳景은	四時 春光 길이 잇다 【81~82구】
일국 경치 제일이라	강남 가려 제왕주의
곳곳 경치 말할소야	
남천 가의 셔천 가의	비단 싯는 선녀자야
교상 흥인 지쥬 마소	한슈 넘고 강이 길다
화류 가시 화류 가시	동남촌의 화류 가시 【말줄 부분은 송곡본】
洛陽 名園 만컷마는	이곳 華麗 當할소나
勝地에 佳節 맛나	안이 놀들 못할네라 【83~86구】

64) 하성래, 앞의 논문(1984).

내용상의 흐름으로 보면 82구 이후 부분에서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뒤에는 동산이 있고 앞에는 개천이 있다”라는 표현에서 ‘동산[苑]’은 덕진지와 그 주변을, ‘개천[川]’은 전주천을 뜻하는 말로 이해되는데, 앞에서 덕진지를 서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뒤에는 전주천에 관련된 서술이 나와야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현은 전주의 경치를 나라 안의 제일이라 단언하면서 사조(謝朓, 464~499)의 시구 “강남은 아름답고 고운 땅, 금릉은 제왕의 고을이라네.[江南佳麗地, 金陵帝王州.]”를 인용하였다.⁶⁵⁾ 경치가 좋은 남방의 길지인 데다 왕실의 본향이기도 한 전주를 중국의 금릉과 등치시켰던 것이다. 그러한 전주의 마지막 경치로 민주현이 꼽은 전주천변은 앞의 풍광들과는 사뭇 다른 결을 지니고 있다. 옥류동·한벽당·만경대와 공북루·만화루는 사대부 문인들에게 특히 의미가 있는 장소이고, 이어지는 덕진지 또한 전주의 빼 놓을 수 없는 승경으로 시심을 자극하는 곳이지만, 남천과 서천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모습이란 전주 백성들의 일상 풍경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⁶⁶⁾

이 모습은 흔히 ‘남천표모(南川漂母)’로 일컬어진다. 조수삼에 의해 전주팔경의 윤곽이 잡힌 후 어느 시점엔가 두 개의 경이 추가되어 ‘전주십경’으로 칭하는 관습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남천교 아래에서 아낙들이 빨래를 하는 모습이었던 것이다.⁶⁷⁾ 민주현 역시 이러한 관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는 남천은 물론 서천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빨래하는 아낙을 “비단 싹는 선녀자”라 하여 아리따운 선녀의 형상으로 각색하는 한편, 그러한 선녀에게 반한 ‘형인’까지 등장시켰다. “한슈 넘고 강이 길다”는 『시경』에서 차용한 말로, ‘유녀(游女)’를 만나고자 하나 강물이 넓고 길어서 만나러 가지

65) 사조, 〈鼓吹曲〉. “江南佳麗地, 金陵帝王州, 逶迤帶綠水, 迢遞起朱樓, (...)”

66) 남천과 서천은 모두 전주천을 지칭하는데, 전주천이 전주의 남쪽을 흐리다가 북서쪽으로 흘러나가기에 물길에 꺾이는 지점을 기준으로 이름을 달리 칭하였다. [김규남·이길재, 앞의 책, 30면 참조.]

67) 노재현·손희경·신상섭 등, 「전주팔경의 시원(始原)과 변용(變容)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3권 3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15, 7-13면 참조.

못하는 사내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⁶⁸⁾ 〈완산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형인’에게 적용하였다. 비단을 씻는 선녀에게 감히 범접하려 하지 말고 어서 갈 길이나 가라는 희롱 섞인 충고를 하였던 것이다.⁶⁹⁾

이처럼 고양된 감흥은 ‘화류 가세’라는 영탄으로 귀결된다.⁷⁰⁾ 앞서 전주의 풍광을 금릉에 견준 데 이어, 마지막 부분에서는 비교의 대상을 낙양으로 설정하였다. 낙양은 이름난 정원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지만, 그곳의 어떤 정원도 전주의 화려함을 넘어서지는 못하리라는 자궁을 드러내면서 봄날의 유락을 추구하였다. 이 부분에 이르러 사대부로서의 엄숙한 자세는 완전히 탈각되고, 민주현의 만흥은 최고조에 달한다. 탈속적 공간에서 차분하게 시작된 전주 편력이 세속적 공간에서 흥취에 가득 찬 상태로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5. 결론

이상에서 사에 민주현이 19세기 중반 전주에 재임하는 동안 지은 가사와 한시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사대부 문인이 바라본 당시 전주의 풍광과 문화의 특색을 살펴보았다.

민주현이 전주의 승경을 탐방했던 이유는 문과 급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정

68) 『詩經』, 「周南」, 〈漢廣〉. “漢之廣矣, 不可泳思, 江之永矣, 不可方思.”

69) 문왕(文王)의 교화가 강수와 한수 사이에 미쳐서 음란한 풍속이 바뀌어 남녀가 함부로 짝을 구하지 않는다는 주자의 주를 참고하여, 〈완산가〉에서도 그 같은 교화적 의미를 표출한 것이라 해석해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文王之化, 自近而遠, 先及於江漢之間, 而有以變其淫亂之俗. 故其出游之女, 人望見之而知其端莊靜, 非復前日之可求矣.”] 그러나 이 부분의 풍류적인 감흥과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70) 화류를 가는 곳을 ‘동남촌(東南村)’이라 하였는데, 〈완산가〉 제137~138구에서 “동남촌(東南村)의 이는 벗임 / 고반재간(考槃在澗) 하였슨이”라고 한 것이나, 한시 〈直中書懷〉에서 “동남쪽 산수에서 배회하기를 좋아하네[東南山水好徜徉]”라고 한 것을 보면 그는 전주의 풍경 중에도 특히 동남쪽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묘 별검이라는 한직을 제수 받아 전주에 머물게 된 데 대한 회한 때문이었다. 정치적 좌절감을 느끼지만 용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란 전주의 명소를 유람하며 시를 짓는 일이었다. 전주의 지세와 역사에 대한 민주현의 시각은 〈완산가〉의 앞부분에 집약되어 있다. 전주부의 남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방위를 옮겨 가며 주요한 지맥을 개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가 전주의 산세는 물론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까지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한편 민주현은 견훤 시대의 '난'이 목조의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치'로 평정되었으며, 목조에 의해 촉발된 왕조 창업의 자취와 영광이 자신의 시대에도 뚜렷이 남아 전한다고 전주의 천 년 역사를 통괄하였다.

〈완산가〉의 이하 부분과 여러 한시를 통해서는 주요 명소들의 특색 및 의의를 드러내고 그에 대한 감회를 표출하였다. 옥류동과 한벽당은 월당 최담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으로, 민주현은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옛 문인의 풍모를 되새길 수 있는 이들 장소에 우선 주목하였다. 고즈넉하고 탈속적인 분위기에 깊이 젖어 들었지만, 옥류동의 스산한 풍광에는 못내 아쉬움을 표하였다. 만경대에서는 포은 정몽주가 대에 올라 임금과 도성을 그리며 지은 시에 공감하면서 그의 충의를 되새겼다. 또한 한성을 떠나 있는 자신의 처지를 정몽주의 처지에 투영하여 차운시를 짓기도 하였다. 이어서 민주현은 전주의 여러 누대를 편력한 후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에게 예를 올리던 공북루와 전주향교의 문루인 만화루를 조명하였다. 그에게 누대는 풍류를 위한 곳이기보다는 관료이자 유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이었으며, 그러한 성향은 관련 한시에서도 발견된다. 앞선 장소들에서 엄숙하고 절제된 모습을 취하였다면 덕진지에 이르러 비로소 고양된 감흥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민주현은 연꽃이 가득 핀 덕진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묘사하면서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는가 하면, 이백을 떠올리며 선계에 대한 동경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전주의 마지막 경치로 제시된 것은 전주천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모습이다. 민주현은 이들을 비단을 씻는 아리따운 선녀의 형상으로 그렸는데, 이 부분에

이르러 사대부로서의 엄숙한 자세는 완전히 탈각되고 작자의 만흥은 최고조에 달한다.

〈완산가〉에 나타난 유람의 궤적을 보면, 지점과 지점 사이의 지리적 연쇄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옥류동과 한벽당은 남동쪽, 만경대는 남쪽, 공북루는 북서쪽, 만화루는 남동쪽, 덕진지는 북쪽, 그리고 전주천은 남쪽과 서쪽에 걸쳐 있어서 방향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산가〉에 제시된 경관의 순서가 그가 실제로 전주 유람을 했던 순서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현이 경관을 배열한 기준은 그러한 지리적 인접성보다는 각 경관의 특징과 연관되어 있다. 즉, 옥류동·한벽당·만경대와 같이 선유들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고아한 공간을 우선 둘러보고, 공북루·만화루에서 사대부로서의 자기 인식을 강화한 후, 덕진지·전주천처럼 풍류가 깃든 일상적 공간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절제된 자세로 시작된 전주 편답이 중국에는 흥취가 가득한 유락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또 한편으로, 옥류동·한벽당·만경대는 산기슭에 위치하고, 공북루·만화루는 평지에 있으며, 덕진지·전주천은 물가인 것을 감안하면, 각 승경이 지닌 입지적인 특징도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공간의 변화가 정서의 변화와도 조응되는 양상이 〈완산가〉에서 발견된다. 요컨대, 민주현은 〈완산가〉와 한시 작품들을 통해서 19세기 문인 사대부가 전주를 유람하는 방식과 관련된 하나의 기준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완산가〉가 언문과 한문으로 전주부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승되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⁷¹⁾ 민주현의 이러한 기준은 19세기 내내 큰 공감을 얻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학 작품은 특정 지역이나 시대의 문화적 현상을 살피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리적 풍경과 인문 환경 등이 작자의 주관으로 해석되고 의미를 부여 받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과 시대를 조망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고는 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민주현의 가사와 한시를 이른바 문학지리학적

71) 각주11) 참조.

견지에서 검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현의 작품은 관찬 지리지나 읍지류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19세기 전주 지역 문화의 특색을 적실하게 보여 준다는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우선 민주현의 가사와 한시 작품을 면밀히 살피는 데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19세기의 전주를 다룬 여타의 문학 작품들과 견줄 때 민주현의 작품이 보이는 특색이 무엇인지 한층 정교하게 비교하는 작업은 미처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시대에 따라 전주의 명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천되어 가는 흐름에 대해서도 충분한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확대된 논의의 구도를 설정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주제어 : 민주현, 전주, 완산가, 한벽당, 만경대, 만화루, 덕진지, 전주팔경, 문학지리학

참고문헌

1. 자료

- 『태조실록』 권1.
『세종실록』 권151.
『철종실록』 권8.
『승정원일기』.
『동국통감』 권13.
『용비어천가』 권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輿地圖書』.
『完山誌』 卷上.
全州府 編, 『全州府史』, 全州: 全州府, 1943.
『금옥총부』.
『청구영언』(진본).
『풍아』.
김종직, 『점필재집』 권22.
민주현, 『사애집』 권1, 6.
서거정, 『사가시집』 권45; 『사가문집』 권2.
송치규, 『강재집』 권8.
조수삼, 『추재집』 권3.

2. 논저

- 곽지숙, 「〈한벽당십이곡〉과 조선후기 누정문화」, 『한국어와 문화』 제10집, 숙명여
대 한국어문화연구소, 2011, 35-62면.
구사회, 「『시조책』(김해정 소장본)과 새로운 시조 작품에 대하여」, 『한국시가문화
연구』 제39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5-31면.

- 김갑기, 「韓國題詠詩研究(1)」, 『한국문학연구』 제12권, 동국대 한문학연구소, 1989, 243-268면.
- 김규남·이길재, 『지명으로 보는 전주 100년』, 신아, 2002.
- 김승우, 「목조 이안사에 관한 전승 연구: 장군수·호운석 설화의 특징과 전승 양상」, 『어문론총』 제74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 189-217면.
- 김승우, 「조선 후기 시조에 반영된 전주의 문화적 도상」, 『조선시대 시가의 현상과 변모』, 보고서, 2017, 503-535면.
- 김신중, 「〈완산가〉의 전승과 변이 고찰」, 『고시가연구』 제2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1-21면.
- 노재현·손희경·신상섭 등, 「전주팔경의 시원(始原)과 변용(變容)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3권 3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15, 7-13면.
- 노재현·신상섭, 「역사경관의 이미지 형성 과정으로 본 한벽당」,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5권 4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07, 52-64면.
- 박준규, 「조선 전기 全北의 樓亭題詠攷」, 『호남문화연구』 제25집, 전남대 호남학연구소, 1997, 251-283면.
- 서인숙, 「『사애집』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편, 『한국문집총간 해제』 11, 한국고전번역원, 2013.
- 이우갑, 「전주 관련 한시 연구: 왕실 분향 이미지를 중심으로」,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2015.
- 정 훈, 「만경대에 형성된 호남 충의 이미지」, 『호남문화연구』 제48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10, 351-378면.
- 정 훈, 「한벽당 제영시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27집, 우리어문학회, 2006, 205-228면.
- 하성래, 「沙屋 閔胄顯의 完山歌攷」, 『명지어문학』 제16권, 명지대 국어국문학과, 1984, 193-227면.
- 하성래, 「完山謠」, 『한국언어문학』 제5집, 한국언어학회, 1968, 53-56면.
- 홍성덕, 「전주의 기맥을 지키는 덕진공원」, 『전주대신문』 제817호(2013. 12. 3.), 6면.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Min Juhyeon's *Wansanga* and Poems in Classical Chinese about Jeonju

Kim, Seung-u

This paper aimed to examine the scenery and culture of Jeonju province during the mid-19th century through Min Juhyeon's *Wansanga* and his poems in classical Chinese.

Although Min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he was appointed as a low-ranking official named Jogyeongmyo Byeolgeom and had to stay in Jeonju for three years. In a situation where he felt politically frustrated but difficult to resign, the only way of life he could choose was to explore the attractions of Jeonju and to compose poetry.

Min's view on the topography and history of Jeonju is gathered at the beginning of *Wansanga*. He outlined the major geographical features of Jeonju from the southeast to the southwest. It turns out that he was aware of the origin of each place's name as well as the topography of Jeonju. In addition, Min explained the history of Jeonju that the confusion of Gyeongwon's era regained order in the age of Mokjo and that Mokjo's influence remained in his own age.

In the following part of *Wansanga* and several poems in classical Chinese, he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Jeonju's major attractions and expressed his emotions about them. Okryudong and Hanbyeokdang are the places where the traces of Choe Dam, a renowned scholar from Jeonju, remained, so Min paid attention to these places that not only recalled the character of Choe but also had outstanding scenery. Mangyeongdae is a hill where Jeong Mongju composed a famous poem missing his king. Min honored Jeong's loyalty here and identified himself with Jeong. Then, after looking around the pavilions of Jeonju, Min especially highlighted Gongbukru, where the local officials of Jeonju

regularly greeted the king, and Manhwaru, the main gate of Jeonju Local School. In this regard, a pavilion was a space for him to strengthen his self-recognition as a literary man, rather than a place for joy. Min took a solemn and temperate appearance in the preceding places, but when he reached Deokjinji, he began to reveal the exalted inspiration. He described the beautiful scenery of Deokjinji filled with lotus flowers and enjoyed the feeling of springtime. In addition, he expressed his longing for ascending to heaven by recalling Li Po. The last scenery of Jeonju in *Wansanga* is the appearance of women washing clothes in the stream, and Min showed off his excitement by drawing them in the form of beautiful fairies who wash silk.

The criterion that Min arranged landscapes in *Wansanga* i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andscape rather than the geographical proximity. After first looking around the noble places in which the traces of the renowned literary men remained, Min visited the places to strengthen his self-recognition as a literary man, and then took the way to daily places full of fascination.

【Key words】 : Min Juhyeon, Jeonju, *Wansanga*, Hanbyeokdang Pavilion, Mangyeongdae Hill, Manhwaru Pavilion, Deokjinji Pond, Eight Famous Spots of Jeonju, Literary Geography

김승우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조교수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자우편: nakimsw@jj.ac.kr

이 논문은 2019년 2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3월 8일에 심사 완료되어 3월 1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